

2024년 2/4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2024. 8.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본 자료는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차 례

<요 약>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I .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1
II .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6
III .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10
IV . 철강 (포항본부 권오익 · 박상순 과장)	14
V . 조선 (경남본부 정승환 과장, 황나윤 조사역)	18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조광래 과장, 임연빈 조사역)	22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손성보 조사역)	26
VIII . 이차전지 (충북본부 백승수 과장)	30

<요약>

① 반도체는 2/4분기 중 수출이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하였으며, 3/4분기에도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범용 반도체 수요도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반도체 수출증가율(이하 전년동기대비): 24.1/4 +50.7% → 2/4 +53.5%

▪ 다만 미국의 빅테크 규제, 대중 무역제재 등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다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② 자동차는 2/4분기 중 생산(대수기준)이 내수판매 부진, 지난해 높은 생산수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3/4분기에는 북미시장이 견조한 수요를 이어가고 신차 출시 효과도 나타나면서 반등이 예상된다.

▶ 자동차 생산증가율: 24.1/4 -3.7% → 2/4 -1.1%

▪ 내수판매는 신차 출시, 견조한 하이브리드차 수요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북미시장 수요 지속, 미국 및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③ 석유화학은 2/4분기 중 생산과 수출이 지난해 생산설비 정비·보수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증가하였다. 3/4분기에는 대외수요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개선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 석유화학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1/4 -2.3% → 2/4 +3.1%

▪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 중이며, 사업전환 성과는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철강은 2/4분기 중 생산이 전방산업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으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국내 건설투자 부진 및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1/4 +0.4% → 2/4 -8.6%

▪ 수출은 물량이 중국 등의 주택 경기 부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단가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⑤ 조선은 2/4분기 중 신규 수주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데 이어, 향후에는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 신규 수주 증가율: 24.1/4 +37.6% → 2/4 +21.2%

- 높은 신조선가, 후판가격 하향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한다.

⑥ 디스플레이는 2/4분기 중 생산이 IT 산업 업황 개선 및 OLED 탑재 제품군 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OLED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4.1/4 +9.0% → 2/4 +9.9%

- 설비투자의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들이 IT기기용 OLED 탑재 확대에 대응한 대규모 장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⑦ 휴대폰은 2/4분기 중 수출이 완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부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증가하였다. 향후 완제품 수출 확대는 제한적이겠으나, 프리미엄 휴대폰용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휴대폰 수출증가율: 24.1/4 -11.8% → 2/4 +12.0% (완제품 -10.5%, 부품 +23.9%)

-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동종업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 폴더블폰 시장의 더딘 성장세 등은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⑧ 이차전지는 2/4분기 중 수출이 對미국 수출은 감소를 지속(24.1/4 -44.4% → 2/4 -47.7%) 한 가운데 對중국 수출도 줄어들면서(+59.9% → -21.0%)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3/4분기 중에도 전기차 수요둔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차전지 수출증가율: 24.1/4 -34.8% → 2/4 -29.4%

- 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정책,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노력 등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친환경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I 반도체 [경기본부 진승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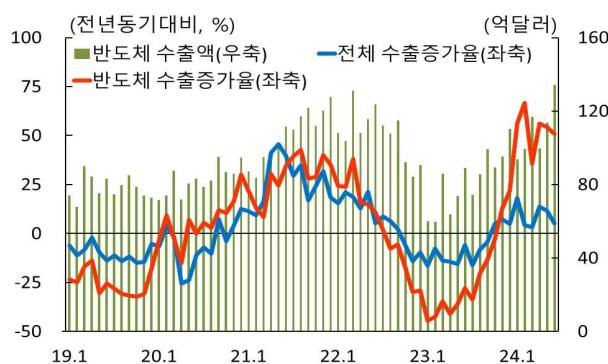
- 2024년 2/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의 견조한 수요,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3.5% 증가하였다.
- 2024년 3/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AI 산업 성장¹⁾에 따른 고성능·저전력·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범용 반도체 수요 개선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빅테크 규제, 대중 무역제재 등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다 AI 인프라 투자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동향

1. 2024년 2/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3.5% 증가하면서 증가세(전분기 +50.7%)가 확대되었다. 메모리반도체(+93.6%)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13.1%)의 증가도 가세하였다. 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²⁾,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의 견조한 수요,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³⁾ 등에 주로 기인한다. 7월 중 수출(잠정)도 전년동월대비 50.4% 증가(메모리반도체 +89.0%, 시스템반도체 +12.9%)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2024년 2/4분기 중 반도체 생산은 재고소진 확대⁴⁾ 등으로 증가세(+22.4%)가 전분기(+44.7%)대비 축소되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그림 1.1] 반도체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 축소

[그림 1.2] 반도체 생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AI 반도체 시장 전망(십억불, Gartner) : (2022) 42.2 → (2023) 53.7 → (2024^e) 84.3 → (2025^e) 114.0 → (2026^e) 144.2 → (2027^e) 173.9

2) 2024.2/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계약가격기준)는 전분기대비 9.9% 상승(전년동기대비 +42.4%)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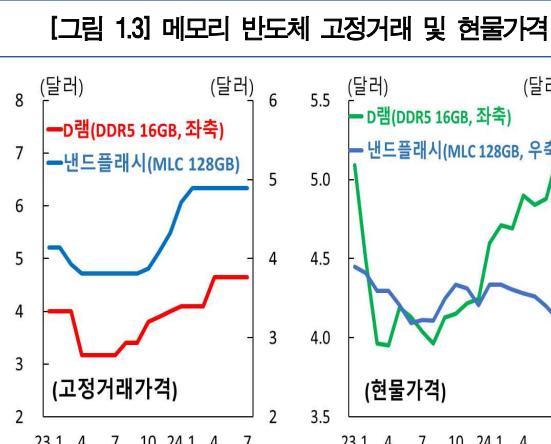
3) 2024.2/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분기대비 4.6% 증가(전년동기대비 +14.8%)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경기지역 전자·영상·음향·통신 부문 재고 증감율 : (2월) -13.4% → (3월) -16.7% → (4월^p) -28.8% → (5월^p) -28.8%

2. 2/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은 D램의 경우 전분기 말대비 상승하였으며 낸드플래시는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5) 현물가격의 경우 D램⁶⁾은 상승한 반면, 낸드플래시는 소폭 하락하였다. D램은 대만 지진 이후 반도체 공급 불안에 따른 PC OEM 업체들의 전략적 재고 축적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낸드플래시는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지속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계절적 비수기로 진입하면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동기간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전년동기대비 각각 +93.9%, +124.8%) 및 영업이익(+247.9%, +289.8%)은 AI 서버용 제품(HBM, LPDDR⁷⁾, eSSD⁸⁾) 수요 호조,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평균판매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실적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요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가동률을 높이고⁹⁾ 관련 설비투자¹⁰⁾¹¹⁾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 품목별 가격 상승세 차별화



자료: DRAMeXchange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세 확대

[표 1.1] 반도체 기업 실적¹⁰⁾

분류		2023		2024		(단위 : 조원, %)
		3/4	4/4	1/4	2/4	
삼성전자 ²⁾	매출액	16.4	21.7	23.1	28.6	(93.9)
	영업이익	-3.8	-2.7	1.9	6.5	(247.9)
	영업이익률	-22.8	-10.1	8.3	22.7	
SK하이닉스	매출액	9.1	11.3	12.4	16.4	(124.8)
	영업이익	-1.8	0.3	2.9	5.5	(289.8)
	영업이익률	-19.8	3.1	23.2	33.3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반도체 부문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5)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고정거래가격(\$):

	23.9월말	12월말	24.3월말	24.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D램	3.32	3.90	4.10	4.65	4.65	4.65	4.65
낸드플래시	3.82	4.10	4.90	4.90	4.90	4.90	4.90

6)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현물가격(\$):

	23.9월말	12월말	24.3월말	24.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D램	4.13	4.25	4.69	4.90	4.84	4.88	5.14
낸드플래시	6.37	6.35	6.40	6.39	6.38	6.35	6.31

7) LPDDR(Low Power Double Data Rate)은 일반 D램보다 전력 소모가 적어 이동성이 강조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AI 산업 성장으로 저전력 · 고성능 · 고용량 메모리반도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PC, 데이터센터 등으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8) 정형 데이터(언어)에 비해 비정형(이미지, 영상 등)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별기업들의 보안 등의 이유로 자체 AI 구축 수요도 증가하면서 추론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On-Premise)하기 위한 eSSD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가운데(삼성전자 70~80%, 키옥시아 100%, 웨스턴디지탈 90% 등) SK하이닉스도 증산을 발표하였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10)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4공장(P4)에 낸드플래시 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7월 말까지 주요 설비를 반입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시작하였던 2023년 초 이후 처음으로 신규 설비투자에 나선 것으로 낸드에 이어 D램 생산라인도 P4에 구축할 계획이다.

11) SK하이닉스도 2024년부터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2024.7.1.)하였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82조원을 HBM 등 AI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4. 2024년 3/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성능·저전력·고용량 메모리반도체 투자 확대, 범용 반도체 수요 개선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업체들의 팹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HBM) 중심의 생산 증가에 따라 범용 반도체 생산여력이 제한(12)(13)되면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5. 메모리반도체는 AI 서버 투자수요가 확대(14)되는 가운데, AI 엣지 디바이스(15) 신제품 출시 등 전방 IT 기업들(16)(17)의 D램 탑재량 증가(18)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울러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로 인한 기업용 PC 교체(19) 및 일반서버의 교체주기(20) 도래도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메모리반도체의 초과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세(21)가 하반기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증가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율은 출하 증가로 정상화

[그림 1.4] 반도체 제조업 재고율¹⁾

주 : 1) (재고지수/출하지수)×100, S.A. 기준
자료: 통계청

메모리반도체의 초과수요로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그림 1.5]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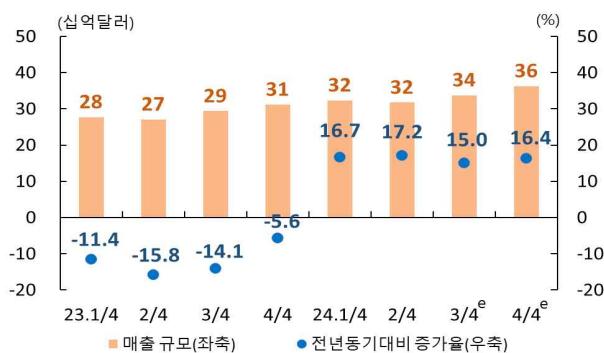
주: 1) 점선은 전망치
자료: Gartner(24.7월)

- 12) HBM은 일반적인 D램 대비 다이(Die) 사이즈가 35~45% 정도 크고, 생산수율은 약 20%p 낮으며, 웨이퍼 생산주기(TSV 공정 포함)는 약 1.5~2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BM의 웨이퍼 당 비트 생산량은 DDR5 대비 1/3 수준에 그쳐, 공급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HBM 생산으로 인한 범용 D램 생산이 제약되어 향후 D램의 비트 생산량은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13) 2025년 4분기 양산 예정인 HBM4(6세대)의 경우 HBM3e(5세대) 대비 I/O의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며, 칩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HBM의 웨이퍼 잡식 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
- 14) 보다 정교한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파라미터와 데이터 용량을 늘리기 위한 AI 서버 투자가 필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모델의 경우 파라미터는 6개월마다 2배씩, 트레이닝에 필요한 연산은 매년 약 10 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산이 AI 서버 능력(캐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충분한 AI 서버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15) AI 모델과 데이터를 내장하여 AI 분석을 수행하는 AI 온 디바이스와 달리 AI 엣지 디바이스는 센서, 카메라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로 전송하여 AI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이다.
- 16) MS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Copilot+ PC)를 공개하였으며, Qualcomm Snapdragon X Elite, Intel의 Lunar Lake 및 AMD의 AI Strix Point 칩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 17) 삼성의 갤럭시 S24모델이 AI 기능을 탑재한 데 이어 Apple의 경우 iphone16에 AI(Apple Intelligence)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도 제품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AI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 18) MS의 Copilot을 장착한 AI PC의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6GB 이상의 D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D램 탑재량 증가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채용량 증대가 전망된다.
- 19) 윈도우 10 기술지원 종료(2025년 10월) 후에도 PC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보안 측면에서 취약하고 버그 관련 업데이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글로벌 PC에서 윈도우 10의 비중은 약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과거 윈도우 기술지원 종료 시기 PC 수요 견인 효과는 평균적으로 6.8% 수준이었다.
- 20)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의 교체주기는 약 4-6년이다. 코로나19 기간중 증설했던 20-21년 서버들의 교체주기가 2024년부터 도래한다.
- 21) 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 Trendforce)
D램(DDR4 8GB) : ('24.1/4) 1.80 → ('24.2/4) 2.10 → ('24.3/4) 2.25 → ('24.4/4) 2.33
낸드(MLC 128GB) : ('24.1/4) 4.84 → ('24.2/4) 4.93 → ('24.3/4) 5.16 → ('24.4/4) 5.19

6. 파운드리 또한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AI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는 확대되겠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첨단 파운드리(3nm 이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TSMC 중심으로 성장²²⁾이 집중된 가운데, 범용 반도체(28nm 이상) 시장에서도 정부 지원²³⁾을 바탕으로 한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²⁴⁾ 등의 영향으로 국내 파운드리의 성장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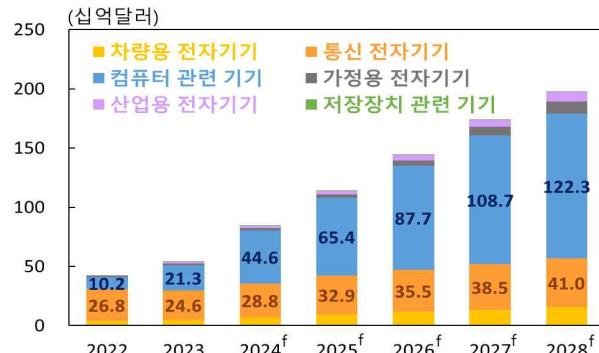
[그림 1.6]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 전망



자료: Gartner(24.7월)

통신 및 컴퓨터 관련 기기를 중심으로 성장세 확대 전망

[그림 1.7] 전자기기별 AI 반도체 수익



주: 주로 AP, GPU, 마이크로프로세서 형태로 각 전자기기에 탑재

자료: Gartner(24.7월)

7. 향후 반도체 산업은 대외여건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화당 밴스 부통령 후보 지명자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공개적으로 표명(2024.7.16.)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²⁵⁾에 의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2024.5.14.)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상 관세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거나 일부 전략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강화했으며, 기존의 제301조 관세 면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는 등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024.5.24.)하였다.²⁶⁾ 최근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AI 투자비용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더딘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현금흐름, AI 인프라 투자여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주가 변동성도 반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2) 팹리스 기업(NVIDIA, AMD, 인텔 등) 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CSP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MS, 구글, 아마존, 메타 등 포함)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TSMC의 미세노드 및 첨단패키징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Open AI, ARM, 테슬라, Apple 등)도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체 반도체 개발 및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TSMC와의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인텔은 내년부터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를 양산해 수주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3)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첨단 반도체에 이어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산 의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각각 24.1월, 24.5월)하였다.

24)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범용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성숙공정에서 중국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30%(2023)에서 45%(20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Trendforce)

25)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미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26)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으나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영민(2024), “2024 반도체 하반기 전망”, 다올투자증권

노근창(2024), “대만 Computex 및 기업 방문 후기”, 현대차증권

류영호(2024), “반도체 산업 : 동트기 전, 새벽”, NH투자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4~6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4~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삼성전자(2024),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자료”

송명섭(2024), “월간 반도체”, 하이투자증권

SK하이닉스(2024),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자료”

차용호(2024), “변화 이후 변화”, LS증권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4), “KSIA ISSUE REPORT”

Joseph Unsworth(2024), “Forecast: NAND Flash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Samuel Wang(2024), “Forecast: Semiconductor Foundry Revenue,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Shrish Pant(2024), “Forecast: DRAM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II 자동차 [울산본부 신준식 과장, 안주현 조사역]

- 2024년 2/4분기 중 자동차산업은 내수(-11.4%, 전년동기대비)가 고금리 및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크게 부진하였으나, 수출(+5.7%)은 북미시장에서의 친환경차 및 SUV 판매 호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2024년 3/4분기 중에는 신차 출시, 견조한 하이브리드차 수요 등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북미시장 수요 지속,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우호적인 환율여건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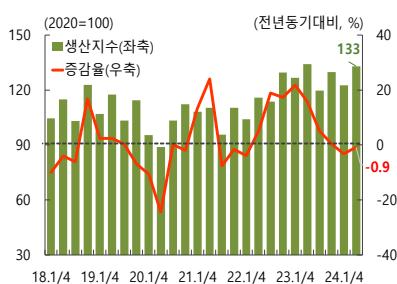
최근 동향

1. 2024년 2/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은 내수판매 부진, 지난해 2/4분기 생산이 최고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 자동차산업 생산지수(133.0)는 전년동기대비 0.9% 하락하였는데, 차종별로 승용차(-0.0%)는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상용차(-14.2%)는 생산이 감소하였다. 2024년 1/4분기 중 현대차 주요 공장의 설비공사²⁷⁾가 완료되어 생산이 재개되면서 가동률지수(114.3)는 장기평균(110.6)을 상회하였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내수판매가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지난해 2/4분기 생산이 역대 최고수준²⁸⁾을 기록한 데 대한 기저효과로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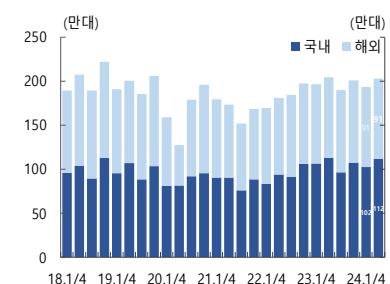
자동차 생산지수 감소폭 축소

국내 생산 소폭 감소

가동률지수 장기평균 상회

[그림 2.1] 자동차산업 생산지수¹⁾[그림 2.2] 자동차 생산대수¹⁾[그림 2.3] 자동차산업 가동률지수¹⁾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자료: 통계청



주: 1) 해외생산은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2) 최근 10년 평균
(2014.1/4분기~2023.4/4분기)
자료: 통계청

27) 2024년 1/4분기 중 현대차 아산공장은 전기차 설비공사(23.12~24.2월), 울산 3공장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라인 공사(24.2월), 전주공장은 전기·수소버스 생산 설비공사(23.12~24.2월)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다.

28) 2023년 2/4분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하였고, 산업생산지수는 134.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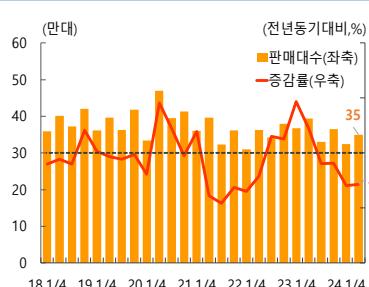
2. 자동차 내수판매(대수)는 고금리 및 실질소득 감소²⁹⁾에 따른 신차 구매 수요 위축, 지난해 높은 수준의 내수판매에 대한 기저효과, 전기차 수요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 감소³⁰⁾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11.3%)와 상용차(-12.1%)³¹⁾ 판매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자동차 할부금리 등 금융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³²⁾하고 있고,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내수판매가 증가³³⁾한 데 대한 기저효과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환경차(+9.3%) 판매는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19.8%) 판매 호조가 전기차(-8.4%) 판매 부진을 상쇄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3. 자동차 수출(대수)은 견조한 북미시장 수요, 고가의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5.7% 증가하였고, 수출액(250.3억 달러, +2.5%)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³⁴⁾하였다. 지역별로 북미(판매대수 +24.7%, 수출액 +24.3%)는 고가의 친환경차 및 SUV 판매 호조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최대 수출시장³⁵⁾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반면 유럽(판매대수 -24.7%, 수출액 -25.8%)은 완성차 판매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6.4%) 수출이 중형 세단 등(+17.7%)을 중심으로 증가³⁶⁾하였으나 상용차(-15.7%) 수출은 큰 폭 감소하였다. 친환경차(+4.5%) 수출은 전기차(-25.9%)가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44.0%)는 큰 폭 증가하였다.

완성차 내수판매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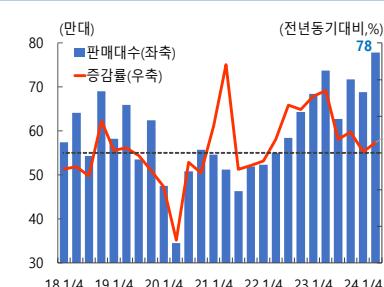
완성차 수출 호조

자동차산업 수출액 역대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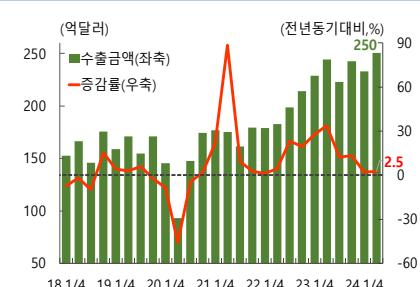
[그림 2.4] 완성차 내수판매¹⁾

주: 1) 국산차 및 OEM 수입차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5] 완성차 수출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6] 자동차산업 수출¹⁾

주: 1) MTI코드 741,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9) 2024년 1/4분기 중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다.

30) 수입차 판매대수(내수판매 점유율 18.2%)는 6.9% 증가하였으며, 전체 내수판매대수(국산차+수입차)는 9.5% 감소하였다.

31) 2024년 2/4분기 중 차종별 상용차 내수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버스 +7.7%, 트럭 -19.3%, 특장차 -2.5%

32)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리는 여전채(AA+, 3년물) 등 조달금리가 하락(2023년 6월말 4.3% → 2024년 6월말 3.5%)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기 이전(2021년 7월말, 1.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3)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조치(5.0% → 3.5%)가 2023년 7월부터 5.0%로 환원되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앞서 2023년 2/4분기 중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8%, 전분기대비 7.3% 증가하였다.

34)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 중소형 SUV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고급 사양을 갖춘 상위 트림 계약비율이 높아지는 등 ASP(평균판매단가)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ASP는 내연기관차 대비 15~20% 높은 수준이다.

35) 2024년 상반기 중 지역별 완성차 수출 판매대수 점유율: 북미(62.2%), 유럽(18.1%), 중동(7.6%), 오세아니아(6.3%) 등

36) 완성차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SUV 수출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다.

향후 전망

4. 2024년 3/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신차 출시³⁷⁾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4분기부터 기아 광명 2공장³⁸⁾에서 소형 전기차(EV3)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캐스퍼 EV), 기아(EV3, K8), 르노코리아(그랑 콜레오스), KG모빌리티(액티언)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신차 출시에 나서면서 소형 전기차 및 SUV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3/4분기 생산이 견조한 글로벌 수요³⁹⁾ 등으로 역대 동분기 최고 수준⁴⁰⁾을 기록하여 생산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내수는 신차출시 효과, 견조한 하이브리드차 수요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출시된 신차에 대한 사전예약 물량이 높은 수준⁴¹⁾을 기록하며 3/4분기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대수가 가파른 증가세⁴²⁾를 이어가고 있고, 높은 연비 효율 등을 바탕으로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수출은 북미시장 수요 지속,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⁴³⁾에 따른 반사이익, 우호적인 환율여건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북미·유럽시장에 전기차 캐즘⁴⁴⁾ 탈출을 위한 중저가 모델의 전기차 출시(캐스퍼EV, EV3, EV6)를 앞두고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작년보다 높은 수준⁴⁵⁾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7)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 신차 출시현황: 2024년 6월 - 현대차(캐스퍼EV), 기아(EV3), 7월 - 한국GM(올 뉴 콜로라도), 르노코리아(그랑 콜레오스), KG모빌리티(액티언), 8월^E - 기아(K8 페이스리프트)

38) 기아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환경차 생산을 위해 광명 2공장 설비 교체와 생산라인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소형 전기 SUV인 EV3 생산을 시작하였다.

39)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판매대수 증가율: 2023년 1/4분기 +30.9% → 2/4분기 +34.0% → 3/4분기 +7.4%

40) 2023년 3/4분기 중 자동차 생산지수(119.6)는 역대 3/4분기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41) 최근 신차 출시에 나선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르노코리아 관계자들은 7월말 기준 사전예약 물량이 각각 1~3만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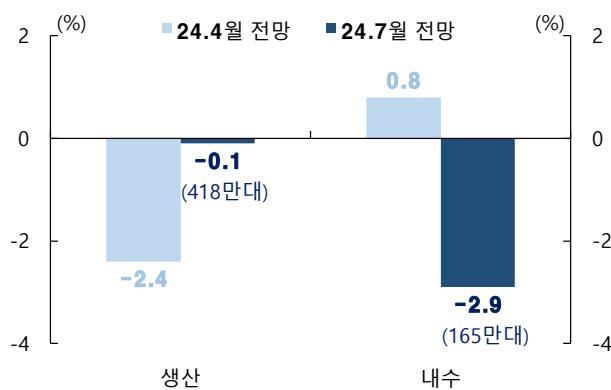
42) 국내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대수: 2022년 26.2만대 → 2023년 37.1만대 → 2024년 상반기 22.8만대

43) 2024년 5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기존 2.5%+추가관세)하기로 발표했으며 8월 중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2024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7.6%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기존 10%+추가관세)하는 잠정조치를 최대 4개월간 실행한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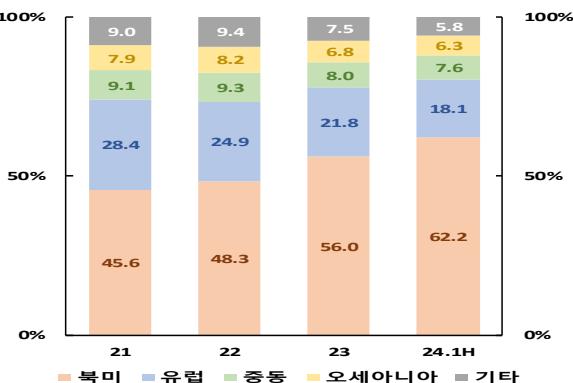
44) 상품 출시 후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대중화되기 직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45) 2024년 7월 중 평균 원/달러 환율(1,383.4원, 매매기준율)은 전년동월 평균 환율(1,286.3원) 대비 7.5% 상승하였다.

연간 자동차 생산 전망 상향, 연간 내수판매 전망은 하향 자동차 수출, 북미시장 중심 증가세 지속

[그림 2.7]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전망¹⁾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S&P Global Mobility

[그림 2.8] 지역별 자동차 수출 판매비중¹⁾

주: 1) 판매대수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24), “2024년 6월 기준 자동차등록 통계”

기아(2024), “기아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미래에셋증권(2024), “현대차 2Q24 Review: 미국과 하반기 이벤트에 주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2024년 자동차산업 4~6월 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2024년 자동차산업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자동차통계월보(2024.6월)”

현대자동차(2024), “현대자동차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Goldman Sachs(2024), “Global Automobiles: Prospects for growth in US and India”

Goldman Sachs(2024), “South Korea Automobiles: What’s next beyond 2Q24 earnings?”

Stephanie Brinley(2024), “Behind the Headlines: EU tariffs on mainland Chinese EVs take effect,” S&P Global Mobility AutoIntelligence

S&P Global Mobility(2024), “Global Sales and Production Commentary,” July 2024

III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 2024년 2/4분기 중 석유화학산업 생산과 수출은 지난해 정비·보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였다. 3/4분기 중 생산과 수출도 대외수요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동향

1. 2024년 2/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다. 지난해 2/4분기 중 국내 생산설비 정비·보수⁴⁶⁾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가동률이 상승하고 생산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세계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상황에서 국내 나프타기반 생산설비의 원가경쟁력 열위⁴⁷⁾, 국내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⁴⁸⁾ 등 부정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⁴⁹⁾하는 등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석유화학 생산은 기저효과로 증가

[그림 3.1] 석유화학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석유화학 기동률지수도 기저효과로 상승

[그림 3.2] 석유화학 기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46) 2023년 2/4분기 중 국내 주요 석유화학 공장(23.4~5월 LG화학 여수공장, 23.4~6월 여천NCC 여수공장, 23.4~6월 한화토탈 대산공장 등)들은 대규모 정기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47) 나프타를 주 원료로 사용(NCC)하는 국내업체의 에틸렌 생산원가는 평균적으로 톤당 805달러 수준이나, 에탄가스를 주 원료로 사용(ECC)하는 미국과 중동 업체의 에틸렌 생산원가 톤당 265달러 수준이다.

48) 중국은 2020년부터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해 2022년 중 생산능력 1위 국가(에틸렌 기준 생산능력, 20년 32백만톤 → 21년 40백만톤 → 22년 46백만톤 → 23년 52백만톤)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이 2025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49)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24년 상반기 중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롯데케미칼 AA/안정적 → AA/부정적, 여천NCC A/안정적 → A/부정적 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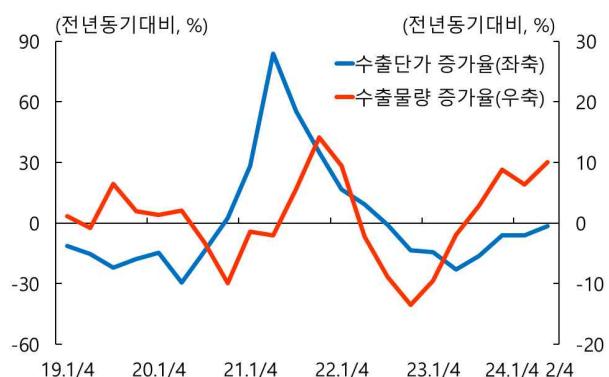
2. 2/4분기 중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다. 수출단가가 하락⁵⁰⁾(-1.5%)하였으나, 수출물량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10.0%)하면서 수출액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對중국 수출이 부진⁵¹⁾하였으나 아시아(중국 제외), 북미지역 등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⁵²⁾하였다. 제품별로는 기초유분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⁵³⁾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

[그림 3.3] 석유화학제품 수출¹⁾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하락, 수출물량은 증가

[그림 3.4]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가¹⁾ 및 물량

주: 1) (수출액)/(수출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아시아(중국 제외), 북미지역 등에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증가

[표 3.1] 지역별 석유화학제품 수출¹⁾²⁾

	2023년		2024.1/4		2024.2/4		2024.7월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수출액	[100.0]	457.0	(-15.9)	120.3	(0.0)	121.2	(8.4)	41.8	(-18.5)
아시아	[66.1]	302.0	(-17.2)	77.2	(-1.8)	77.6	(-10.1)	28.8	(23.6)
(중국)	[37.3]	170.5	(-17.6)	41.7	(-2.9)	39.9	(-2.5)	15.7	(18.1)
(동남아)	[16.9]	77.3	(-22.2)	21.7	(-14.2)	22.9	(31.3)	7.8	(34.6)
유럽	[16.4]	74.8	(-7.9)	20.4	(-10.4)	19.8	(1.7)	6.4	(17.3)
북미	[8.7]	39.8	(-14.9)	12.1	(9.3)	14.4	(26.3)	3.3	(-1.6)
중남미	[3.8]	17.2	(-23.1)	4.7	(2.4)	4.7	(6.5)	1.7	(33.0)
중동	[2.7]	12.5	(-19.9)	2.9	(-14.5)	2.8	(-13.4)	0.9	(1.1)
기타	[2.4]	10.8	(-13.5)	2.9	(-16.5)	2.0	(-30.8)	0.7	(-31.7)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내는 2023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0) 2024년 2/4분기 중 국제유가가 상승(+9.6%, Dubai유 기준, 전년동기대비)하였으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하였다.

51)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 등으로 중국向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52) 지역별 주요국이 양호한 성장세(IMF의 24년 경제성장을 전망치 1월 대비 7월, 미국 2.1% → 2.6%, 인도 6.5% → 7.0%)를 보이며 2/4분기 중 석유화학 수출 증가(미국向 +25.9%, 인도向 +35.6%, 전년동기대비)를 견인하였다.

53) 2024년 2/4분기 중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기초유분 +22.1%, 합섬원료 +19.3%, 합성고무 +20.0% 등

향후 전망

3. 3/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과 수출은 대외수요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⁵⁴⁾ 등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과잉 지속으로 기조적 업황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유가⁵⁵⁾ 지속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지표(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을 큰 폭 하회⁵⁶⁾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4. 한편,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⁵⁷⁾ 중이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 석유화학 사업의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글로벌 환경 규제⁵⁸⁾가 강화됨에 따라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친환경 제품 등으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에 대규모 투자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업별 재무여력이 사업전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 매출전망은 다소 회복되는 모습

[그림 3.5] 화학제품 제조업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수익성지표는 낮은 수준을 지속

[그림 3.6] 에틸렌 스프레드¹⁾



주: 1) (에틸렌 가격) - (나프타 가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산업통상자원부

54) 올해 들어 캐나다(6월), ECB(6월), 중국(7월) 등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55) NCC와 ECC의 에틸렌 생산원가 차이(NCC원가/톤-ECC원가/톤)는 유가가 50달러/배럴일 때 230달러이며, 유가가 100달러/배럴로 상승하는 경우 그 차이가 800달러/톤으로 확대돼 NCC의 수익성이 저하된다. 2024년 하반기 중에도 유가가 80달러를 상회(미국 에너지관리청 전망치, 24.3/4분기 87.97달러/배럴, 4/4분기 89.64달러/배럴, Brent유 기준)하며, 해외 ECC대비 국내 NCC의 수익성 열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56) 2024년 2/4분기 중 에틸렌 스프레드는 162달러/톤을 기록하여 순익분기점(300달러/톤)을轻松突破하였다.

57) LG화학(전지소재·친환경소재·신약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57%로 확대 추진), 롯데케미칼(첨단소재·정밀화학 등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70%로 확대 추진)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58) UN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을 추진 중이며, 미국도 석유휘화 등 12개 탄소중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참고문헌

한국기업평가(2024), “2024년 주요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한국수출입은행(2023),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한국수출입은행(2024),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장기화 가능성 점검”

한국신용평가(2024), “석유화학 산업 2024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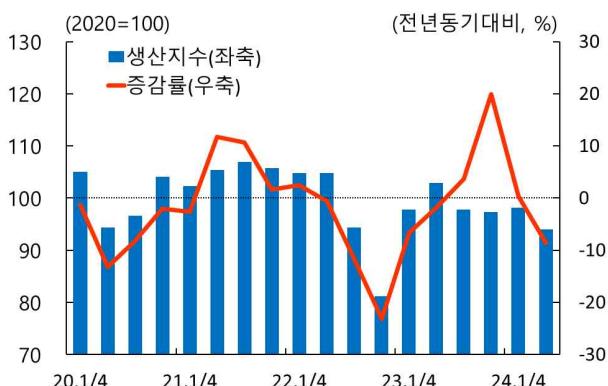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 2024년 2/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감소(-8.6%, 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수출은 물량 감소(-4.0%),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10.8%) 등의 영향으로 감소(-14.4%)하였다.
- 향후 철강제품 생산 및 수출은 국내 건설 경기 부진,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향

1. 2024.2/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하였다. 철강제품 수요는 자동차⁵⁹⁾, 기계⁶⁰⁾, 건설⁶¹⁾, 가전⁶²⁾ 등에서는 부진한 반면, 조선⁶³⁾ 등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이 증가⁶⁴⁾하면서 국내 철강제품 생산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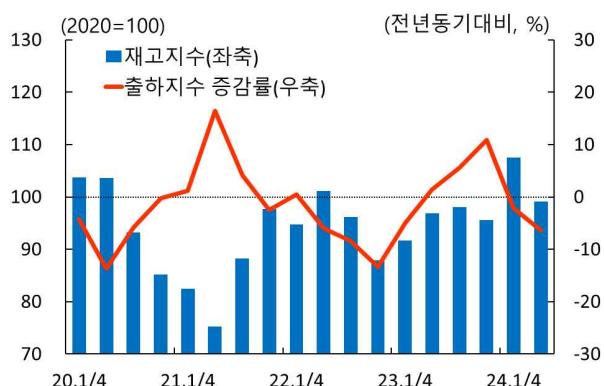
1차 철강제품 생산은 감소

[그림 4.1] 1차 철강제품¹⁾ 생산지수

주: 1) 1차 철강제품은 슬래브, 블룸, 빌릿 등의 반제품으로
추가 공정을 통해 판매, 봉형강 등의 완제품으로 제작
자료: 통계청

1차 철강제품 출하 감소 및 재고 수준 증가

[그림 4.2] 1차 철강제품 출하 및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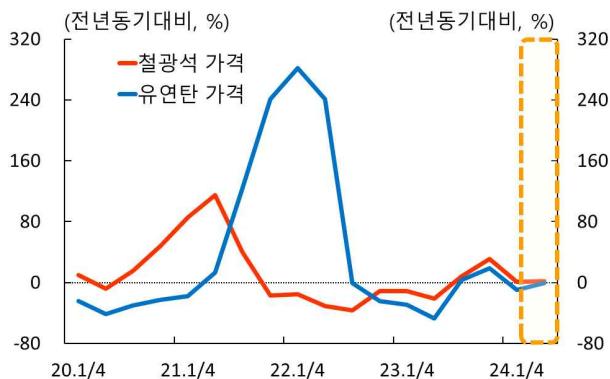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59) 2024.2/4분기 자동차생산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여 1/4분기(-3.7%)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60) 2024.2/4분기 기계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여 1/4분기(-0.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 61) 2024.2/4분기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여 1/4분기(+4.1%)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 62) 2024.2/4분기 가전제품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여 1/4분기(-3.2%)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 63) 2024.2/4분기 선박 및 보트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여 1/4분기(-7.3%) 대비 증가 전환하였다.
- 64) 전체 중후판(MTI 6131, 선박 건조용으로 주로 사용) 수입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 33.6% → 2023년 48.5% → 2024년 상반기 52.6%)하고 있다.

2. 철강제품의 주재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은 보합 수준을 유지(각각 전년동기대비 1.5% 상승, 0.8% 하락)하였다. 국내 조강⁶⁵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조업 축소⁶⁶, 고로 개수공사 실시⁶⁷ 등에 주로 기인한다.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은 보합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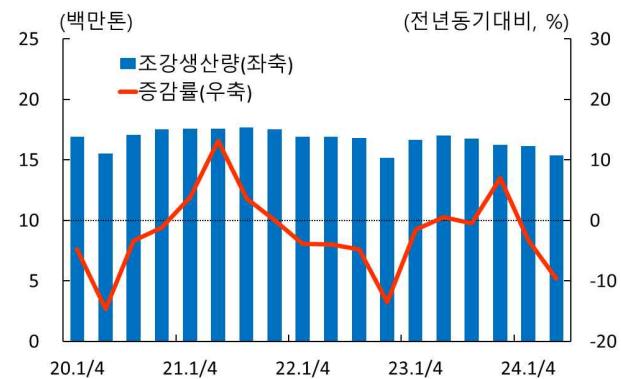
[그림 4.3] 철광석¹⁾ 및 유연탄²⁾ 가격 상승률

주: 1) 중국 텐진항 철광석 수입가(CFR, Fe 62%) 기준
2) 호주 원료탄 수출가(FOB, Australia Premium Low Vol)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내 조강생산량은 감소

[그림 4.4] 국내 조강생산량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3. 2024.2/4분기 중 철강제품(MTI 61) 수출(83.0억 달러)은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일본(+7.0%) 및 인도(+12.0%)로의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중국(-5.9%) 및 미국(-8.3%)으로의 물량이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였다. 수출단가는 중국 및 일본산 철강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하락하였다. 중국(-5.6%), 미국(-16.5%), 일본(-5.7%), 인도(-5.9%)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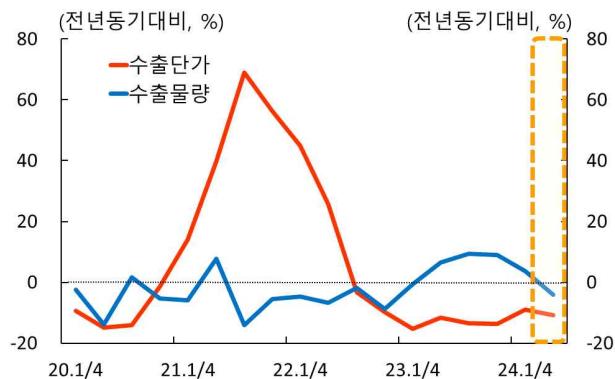
65) 조강(粗鋼, crude steel)은 강철의 제조공정 중 쇳물로부터 처음 나오는 강괴(鋼塊)로, 가공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본재료가 된다.

66) 현대제철의 일부 건축용 철근 생산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보수 작업 등을 이유로 비가동된 상황이다.

67)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24년 2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고로 개수(改修: 고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불을 끄고 생산을 중단한 채 설비를 신예화하는 작업으로, 통상 15년 전후를 주기로 실시) 작업을 실시하였다.

68)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 내수 수요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주로 기인하다. 2024년 상반기 중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5,34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다.(중국 해관총서)

철강제품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는 하락

[그림 4.5] 철강제품 수출물량 및 단가¹⁾ 추이

주: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기준,
자체 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감소

[그림 4.6] 철강제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중국·미국·일본·인도 모두 감소

[표 4.1] 2024.2/4분기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 증가율

	전체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전년동기대비, %)
수출금액	-14.4	-5.6	-16.5	-5.7	-5.9	
수출물량	-4.0	-5.9	-8.3	7.0	12.0	
수출단가	-10.8	0.3	-8.9	-11.9	-16.0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자체 시산

향후 전망

4. 향후 철강제품 생산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⁶⁹⁾,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철강협회(2024.4월)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높은 원가로 인한 주요국 주택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024년 철강 수요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⁷⁰⁾

5. 철강제품 수출은 물량이 감소하고 단가 하락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단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하락압력을 받겠으나 구체적 수준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9)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5월)

70)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4년 1.7% 증가(2023.10월 전망치(+1.9%) 대비 0.2%p 하향 조정), 2025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 철강 수요는 2024년 0.8% 감소, 2025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4.4.17.)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4년 경제전망 II (생산부문)”

동국씨엠(2024)·동국제강(2024),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스틸데일리(2024), 신문자료 및 DB센터

키움증권(2024), “Steel&Metal Weekly”

통계청(2024), “산업활동동향”

포스코홀딩스(2024), “2024.2Q 실적발표 기업설명회”

하나증권(2024), “철강금속 Weekly”

하이투자증권(2024), “Steel Weekly”

한국광해광업공단(2024), “주간 광물가격 동향” 및 “월간자원 Insight”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은행(2024),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철강협회(2024), “주간 철강산업 동향” 및 “월간 철강보”

현대제철(2024), “2024년 2분기 경영실적설명회”

World Steel Association(2024), “Crude Steel Production”

World Steel Association(2024),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April 2024”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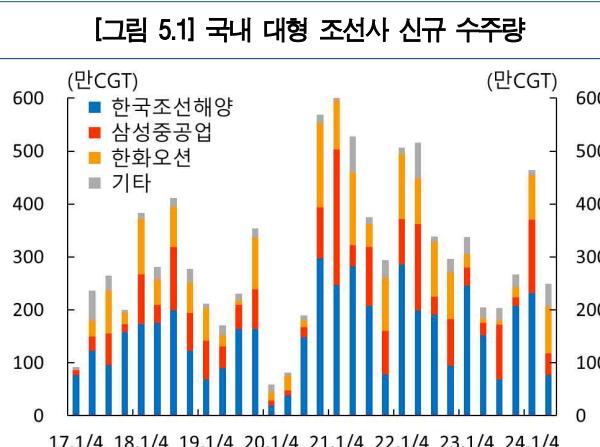
조선 [경남본부 정승환 과장, 황나윤 조사역]

- 2024년 2/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LNG선, 유조선, 가스선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하였다. 수주 잔량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선박 생산 및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 향후 조선업의 수익성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지속, 높은 신조선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후판가격 하향 안정화, 인력난 완화 등도 업황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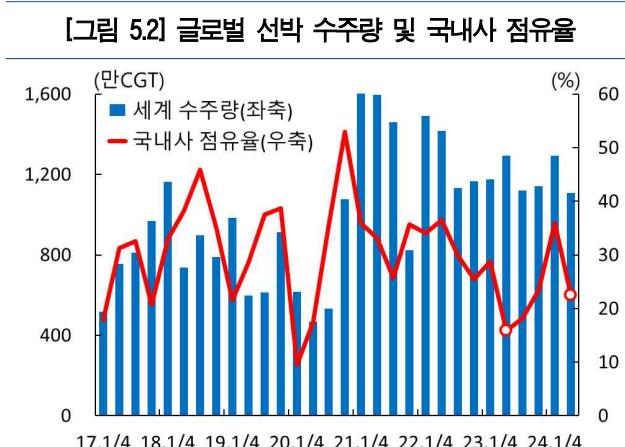
1. 2024년 2/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248.8만CGT**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하였다.⁷¹⁾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2/4분기 15.9%에서 22.5%로 상승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선종별 수주를 살펴보면, LNG선(120.0만CGT, +24.9%), 유조선(75.9만CGT, +66.5%), 가스선(25.9만 CGT, 전년동기대비 +40.3%)이 증가하면서 수주 증가세를 이끌었다. 컨테이너선(7.8만 CGT, 전년동기대비 -75.4%)의 경우 그간의 과잉 공급 등으로 지난 2분기 연속 수주가 없었으나, 홍해 사태 장기화⁷²⁾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신규 수주가 발생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자료: Clarksons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



자료: Clark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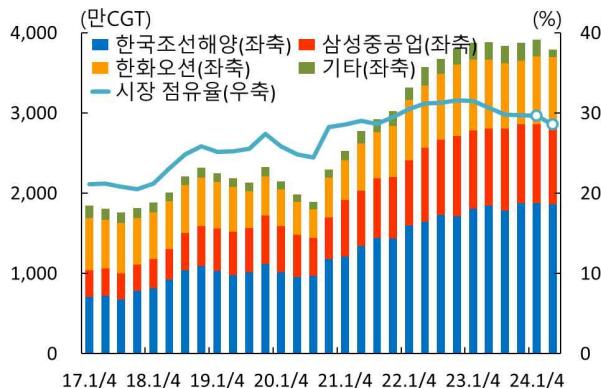
71) 글로벌 신규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한 가운데 국가별 전년동기대비 신규 수주는 한국 +21.2%, 중국 +3.3%, 일본 -84.4%를 기록하였다.(Clarksons)

72) 홍해 후티 반군 사태에 따른 수에즈 운하 봉쇄 장기화의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다.

2. 2024년 2/4분기 말 국내 조선사 수주 잔량은 3,791.7만CGT로 전분기(3,918.5만CGT)대비 3.2% 감소하였다. 선종별 수주 잔량은 LNG선이 2,110.0만CGT로 가장 높은 비중(55.6%)을 차지하며, 이어 컨테이너선(898.6만CGT, 23.7%), 유조선(344.3만CGT, 9.1%), 가스선(325.9만CGT,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점유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그림 5.3]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Clarksons

수주잔량은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의 순

[표 5.1] 국내 조선사 2/4분기 말 주요 선종별 수주잔량

	LN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²⁾	유조선 ³⁾
국내전체	2,110.0	898.6	325.9	344.3
한국조선 ¹⁾	825.6	479.9	277.1	200.7
삼 성	636.4	248.7	20.2	6.0
한 화	648.0	128.6	28.7	25.8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통합법인

2) LPG, 암모니아, LCO2 등 운반선(LNG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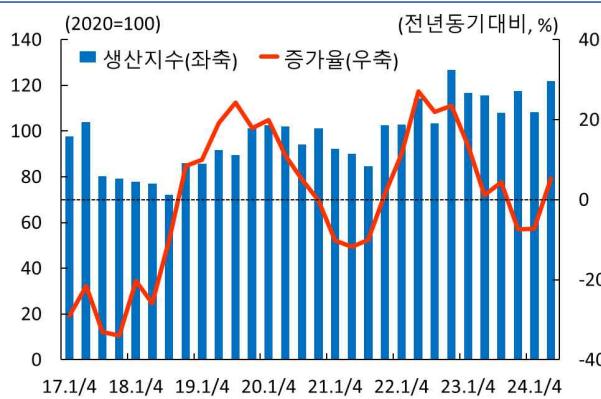
3)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자료: Clarksons

3. 2024년 2/4분기 중 선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2/4분기 중 선박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53.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선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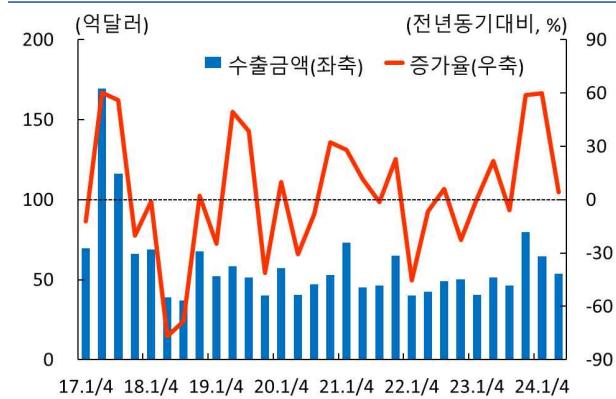
[그림 5.4] 전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선박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림 5.5] 선박 수출금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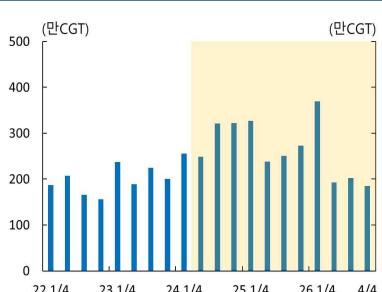
4.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11월 美대선 결과⁷³⁾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선⁷⁴⁾의 경우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 상승, 해운동맹 2M(MSC-Maersk) 해체(25년 예정)에 따른 운임경쟁 심화, 노후선대 교체에 대한 발주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은 확대될 전망이다. 가스선(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LPG 운반선 등) 및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신조선가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주 잔고도 높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매출액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 안정화로 인한 원가 개선, 후판가격⁷⁵⁾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⁷⁶⁾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 인력사정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은 중기적 리스크 요인이다. 경남지역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체 중 인력문제를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하락하여 그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인력난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조선소들의 생산시설 증설과 수주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및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선가하락 등은 중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된다.

생산 및 수주는 양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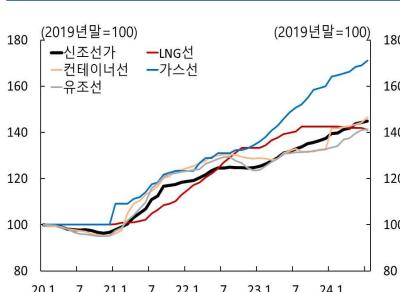
[그림 5.6] 국내 조선사 인도(예정)량⁷⁷⁾



주: 1) 음영 부분은 인도예정량
자료: Clarksons

높은 선가로 수익성 개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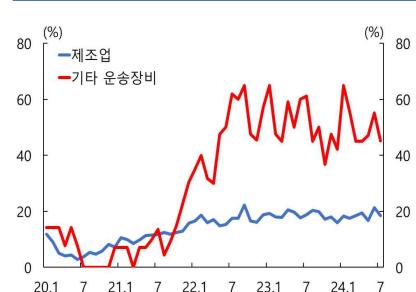
[그림 5.7]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인력난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나 점차 개선될 전망

[그림 5.8] 인력문제 응답 비율⁷⁸⁾



자료: 한국은행 경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기준

73) 다수의 시장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로 LNG 등 가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uters, 24.8.2)

74) 24.7월 현재 8K 이상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는 41척으로 21~23년 발주 초회황 기간(21년 : 199척, 22년 : 140척, 23년 : 108척)을 제외하면 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Clarksons)

75) 후판가격(포스코, 유통가 기준)은 하락세(24.1/4 : -18.3% → 2/4 : -15.3%, 전년동기대비)가 지속되고 있다.(스틸데일리)

76)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은 삼성중공업(23년 : 2,333억원→24년^E : 4,110억원), HD한국조선해양(2,820억원→9,810억원), 한화오션(-1,960억원→2,040억원)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한투자증권 추정, 24.7월)

참고문헌

변용진(2024), “이게 웬 컨테이너야”, IM하이

위경재(2024), “Project 2025 on Trump 2.0”, 하나증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24),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한국수출입은행(2024), “해운조선업 2024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기업경기조사”

Clarksons, “신규수주·수주잔량·신조선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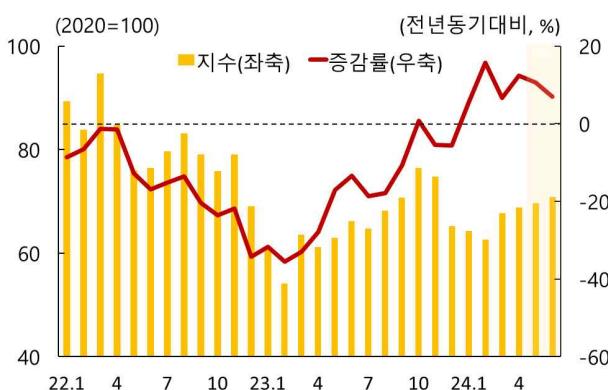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조광래 과장, 임연빈 조사역]

- 2024년 2/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 및 수출은 IT 산업 업황 개선 및 OLED 탑재 제품군 확대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IT기기 수요 개선, OLED 패널 가격 반등 등에 힘입어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동향

1. 2024년 2/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은 OLED 탑재 제품군 확대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OLED 탑재처가 스마트폰 보급형 모델 및 태블릿PC 고급형 모델 등으로 점차 확대⁷⁷⁾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중심으로 재편⁷⁸⁾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IT 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지수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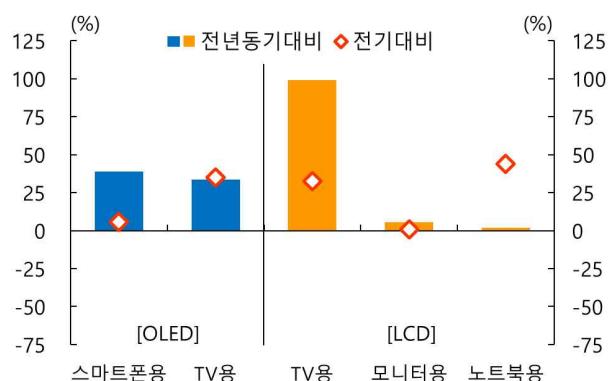
디스플레이 생산 개선세가 지속

[그림 6.1] 디스플레이 생산지수¹⁾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업체의 글로벌 패널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지속

[그림 6.2] 2024년 2/4분기 중 국내업체 패널 출하 증가율¹⁾

주: 1) 수량 기준

자료: 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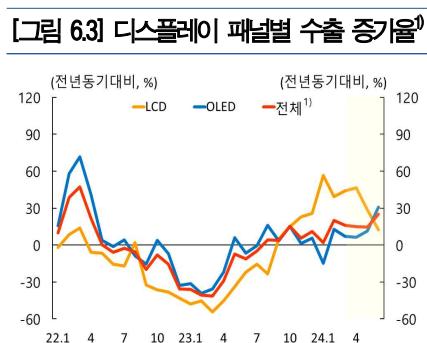
77)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A 시리즈)의 일부 모델 및 애플의 태블릿PC의 프리미엄 모델(프로 시리즈)에 OLED 탑재가 시작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중소형 및 대형 OLED 출하량이 증가(2024년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1% 및 144.8% 증가)하였다.(Omdia)

78)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OLED 비중(2024년 2/4분기 기준)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출하량의 96.3%, 대형 디스플레이 출하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내 OLED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였다.(Omdia)

2. 수출은 OLED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전년동기대비 +19.4%)되었다. OLED의 경우 태블릿 시장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OLED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⁷⁹⁾하면서 증가세가 확대(전년동기대비 +16.5%)되었으며 LCD는 노트북, 모니터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28.2%)를 이어나갔다. 한편 국가별로는 對베트남 수출(전체 수출의 60.1%) 중심 구조가 지속되었다.⁸⁰⁾

3. 패널 가격은 유형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OLED 패널의 경우 중소형 OLED 패널 가격은 전반적인 공급 확대⁸¹⁾에도 불구하고 IT기기 수요 개선 등으로 하락폭이 완화(전년동분기말대비 -14.3%, 전분기말대비 +4.6%)되었다. 대형 OLED 패널 가격은 고급형 TV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부진을 지속(전년동분기말대비 -14.0%, 전분기말 대비 0.0%)하였다. 반면 대형 LCD 패널 가격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전년동분기말대비 +17.7%, 전분기말대비 +6.8%)을 나타냈다. 그 결과 대형 OLED 패널과 대형 LCD 패널 간 가격 차이는 2022년 3/4분기 5.3배(OLED 패널 가격÷LCD 패널 가격)에서 2024년 2/4분기 2.7배까지 축소되었다.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세 확대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베트남 수출 증가세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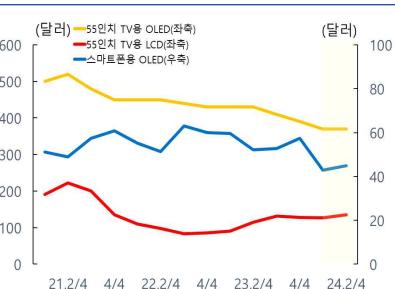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 836) 기준
2) []내는 2024년 2/4분기 중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형 OLED 패널 가격 하락세 완화, 대형 패널 가격은 OLED 하락, LCD 상승

[그림 6.4]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자료: Omdia, KDIA

79) 태블릿PC에 탑재되는 OLED 시장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점유율은 2024년 1/4분기 63.6%에서 2024년 2/4분기 81.1%로 상승하였다.(Omdia)

80) 베트남 및 중국 현지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받은 후 모듈 공정을 거쳐 현지의 핸드폰 및 TV 등 ICT제품의 제조 공장으로 납품하는데, 한국 및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등)은 베트남에 모듈 공장을 보유, 설립 및 증축하고 있어 對베트남 수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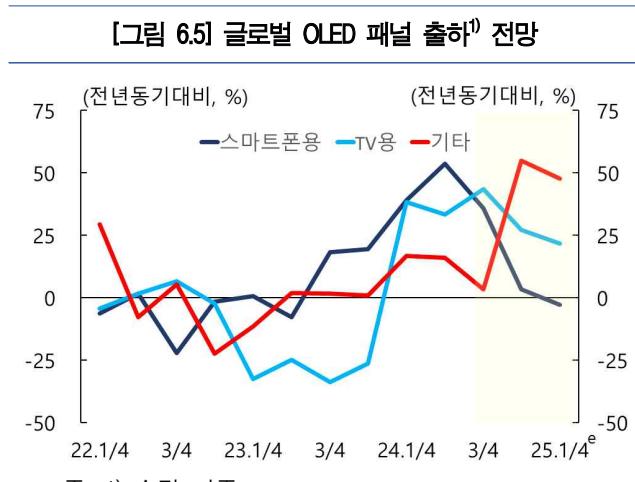
81) 스마트폰용 OLED 글로벌 출하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3.6%까지 증가세가 확대(2023년 3/4분기 +18.4% → 4/4분기 +19.4% → 2024년 1/4분기 +39.1% → 2/4분기 +53.6%)되었다.(Omdia)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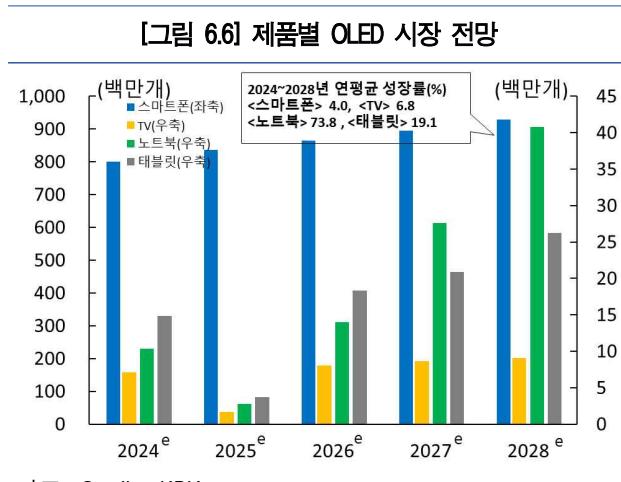
4.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IT기기 수요 개선 및 OLED 탑재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OLED 탑재가 상용화⁸²⁾되고 태블릿PC 고급형 모델에도 OLED가 탑재되기 시작하는 등 OLED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디스플레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 탑재 제품 출시 등으로 IT기기 수요가 개선⁸³⁾되는 가운데 중소형 OLED 가격 반등⁸⁴⁾이 예상되어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IT기기용 OLED 탑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OLED 탑재처가 스마트폰 이외의 IT기기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⁸⁵⁾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장비투자가 확대⁸⁶⁾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의 수주잔고⁸⁷⁾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IT기기에서 OLED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투자가 진행될 전망



82)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출하량 기준)은 2024년 3/4분기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Omdia)

83) Counterpoint와 TrendForce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및 노트북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1%, 1.7%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 및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이 4.3%로 글로벌 출하량(+3.1%)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84) 스마트폰용 OLED 패널 가격은 올해 1/4분기에 처음으로 40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3/4분기 중 50달러대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Omdia)

85) 올해 전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약 77억달러로 예상되며, 삼성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투자 규모가 전세계 투자 규모의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DSCC)

8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올해부터 반등하면서 2024년 1/4분기 80.6%, 2/4분기 4,551.1% 증가하였다.

87) LG디스플레이 및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증착기)를 공급하는 선익시스템의 경우 수주잔고가 2024년 1/4분기 말 1천억원을 돌파하였다.

참고문헌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Omdia(2024), “Display Dynamics”

Omdia(2024), “Large Area Display Market Tracker”

Omdia(2024), “PriceWise”

Omdia(2024), “Small Medium Display Market Tracker”

TrendForce(2024), “DRAM Platinum Datasheet”

VII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손성보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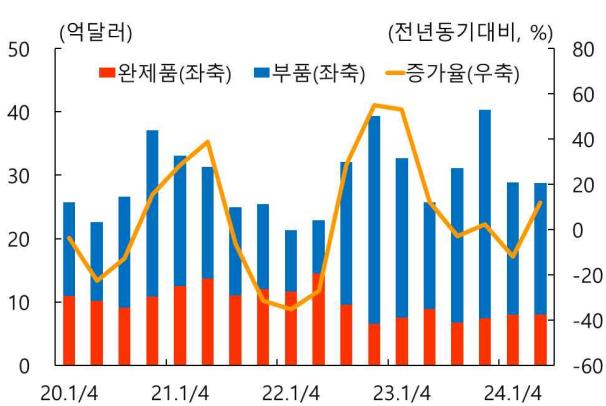
- 2024.2/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완제품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미국, 중국 등으로의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였다.
- 향후에도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 제조용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동향

1. 2024.2/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완제품이 10.5% 감소한 반면 부품은 23.9%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였다. 휴대폰 완제품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났으나 미국, EU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⁸⁸⁾ 부품 수출은 삼성의 AI 탑재 스마트폰이 전작 대비 판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3/4분기 삼성과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⁸⁹⁾를 앞두고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

[그림 7.1]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완제품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부품 수출은 증가

[표 7.1] 2024.2/4분기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완제품		부품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0.10	(-96.6)	0.42	(39.7)
EU ¹⁾	4.97	(-4.0)	0.71	(16.4)
중국 ²⁾	0.33	(5.2)	11.57	(20.0)
베트남	0.05	(21.1)	5.51	(15.8)
인도	0.01	(-38.8)	0.65	(5.7)
전체	7.96	(-10.5)	20.81	(23.9)

주: 1) 영국 포함, 2) 홍콩, 마카오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88) 최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지에 분포한 생산기지의 생산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 및 부품 생산량과 수출물량도 수요와 공급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2/4분기 중 삼성전자 국내사업장의 휴대폰 수출은 글로벌 출하량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9) 삼성은 7월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Z 폴드·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였고, 애플은 9월 중 아이폰16을 공개 할 예정이다.

2. 2/4분기 중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3.0%)하였으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 1.3% 감소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다. 주요 제조사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물량 기준)은 AI 탑재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폰의 수요가 높은 북미, 유럽 지역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중남미, 중동으로의 출하량이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3%로 전년동기(20.0%) 대비 0.7%p 하락하였다. 애플의 경우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0.7%p 하락하였다(2023.2/4분기 16.9% → 2024.2/4분기 16.2%). 한편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업체(화웨이)와 저가 스마트폰 생산업체(오포·비보·샤오미)는 내수시장을 비롯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⁹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상승하였다.(2023.2/4분기 36.1% → 2024.2/4분기 38.7%)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표 7.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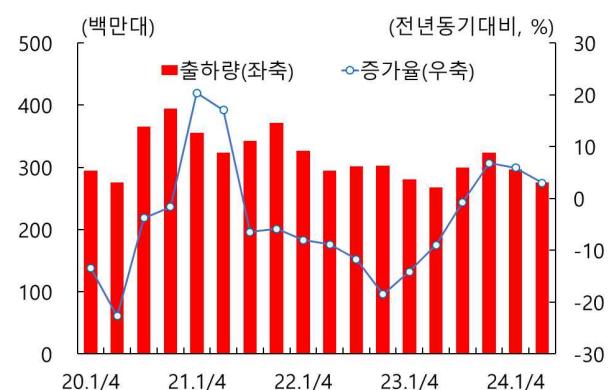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1.2/4	3/4	4/4	22.1/4	2/4	3/4	4/4	23.1/4	2/4	3/4	4/4	24.1/4	2/4
삼성	6.3	-138	10.4	-2.8	8.5	-7.2	-155	-186	-144	-7.6	-9.1	-1.0	-0.2
애플	30.4	15.1	-0.5	-0.8	-4.9	2.5	-14.1	-1.7	-2.6	-0.6	5.7	-128	-1.3
오포·비보·샤오미	61.4	3.1	-5.1	-243	-237	-175	-205	-184	-146	-5.8	1.1	11.1	3.9
화웨이 · 아니	-71.7	-60.1	-37.9	-1.8	24.5	4.3	-8.6	-4.5	1.4	26.2	53.2	45.0	35.0
전체	17.1	-6.5	-5.9	-8.0	-8.9	-11.7	-185	-14.1	-9.0	-0.7	6.8	6.0	3.0

자료: Count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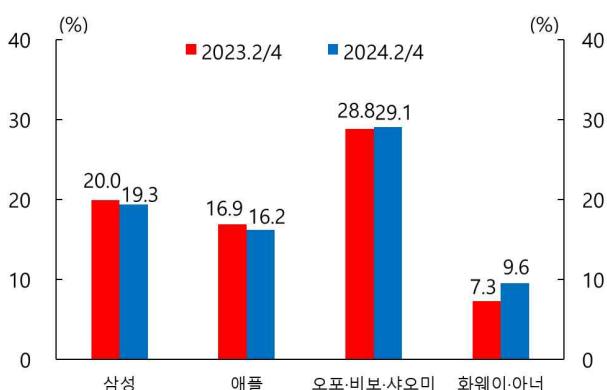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화웨이와 OVX¹⁾는 증가

[그림 7.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그림 7.3]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 Counterpoint

주: 1) 오포(Oppo), 비보(Vivo), 샤오미(Xiaomi)

자료: Count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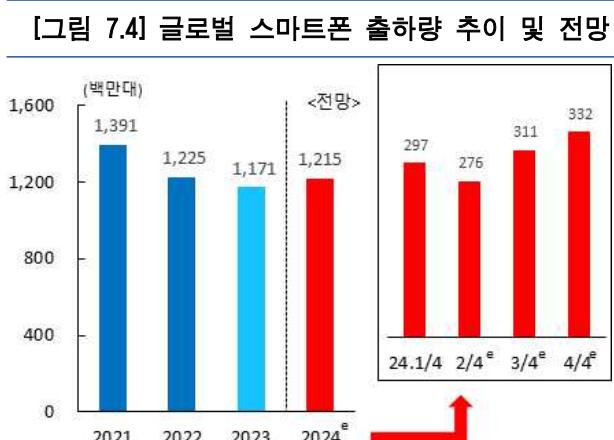
90) 화웨이는 2022년 연간 23.4백만 대를 출하하며 글로벌 출하량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38.3백만 대, 2024년 50.8백만 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애국소비 현상 등으로 출하량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Counterpoint)

향후 전망

3. 향후 휴대폰 완제품 및 부품 수출은 프리미엄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AI 탑재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휴대폰 완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내외 사업장 간 생산조정 등으로 국내 생산 완제품의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품 수출은 올해 삼성과 애플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AI 탑재 스마트폰으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고사양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⁹¹⁾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동종업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 폴더블폰 시장의 더딘 성장세 등으로 인해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이어 스마트폰 시장에서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가운데 북미, EU 등을 중심으로 AI 탑재 스마트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AI 탑재 스마트폰을 출시⁹²⁾하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자국산 스마트폰 선호 현상을 고려할 때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중화권 제조업체들도 잇따라 폴더블폰을 출시⁹³⁾하면서 삼성전자 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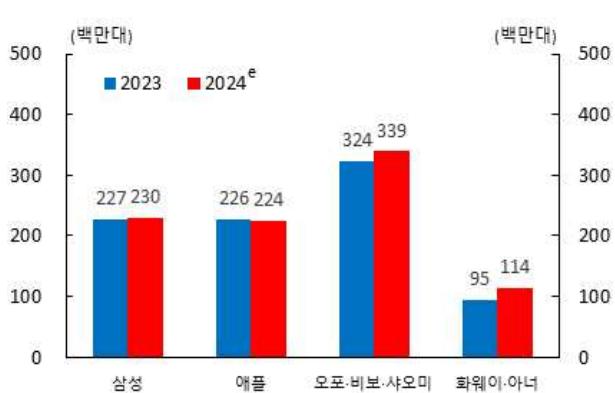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자료: Counterpoint

삼성전자 및 중국 주요 업체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애플은 소폭 감소할 전망

[그림 7.5]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생산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91) 시장조사업체 Counterpoint는 삼성의 글로벌 출하량이 금년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시장에서는 중화권 판매실적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2) 상반기에 중국 제조업체들은 200(HONOR), X100S(VIVO), Find X7(OPPO) 등 AI 탑재 스마트폰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였고, 애플은 하반기중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16을 출시할 예정이다.

93) 화웨이, HONOR, OPPO 등 다수의 중화권 업체들이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시장에서의 5G 모델 폴더블폰의 판매호조를 바탕으로 1/4분기 중에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1위를 달성하였고 두 번 접는 폴더블폰 특허를 출원하는 등 폴더블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4~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여태경(2024), “AI 스마트폰 출시 경쟁 심화”, 현대차증권

이창민(2024), “스마트폰 2.0 시대의 시작?”, KB증권

Counterpoint(2024), “Mobile Device Forecast”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by Brand Region(Long Term)”

Counterpoint(2024), “Market Pulse OEM Sales”

VIII 이차전지 [충북본부 백승수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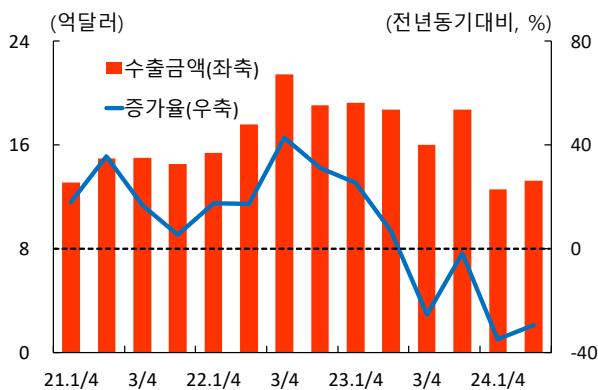
- 2024년 2/4분기 중 이차전지와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주요 대상국인 미국, 유럽, 중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원재료가 하락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한다.
- 3/4분기 중에도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전기차 수요 둔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최근 동향

- 2024년 2/4분기 중 이차전지와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4%, 양극재 수출은 50.9% 줄어들며 전분기(각각 -34.8%, -52.6%)와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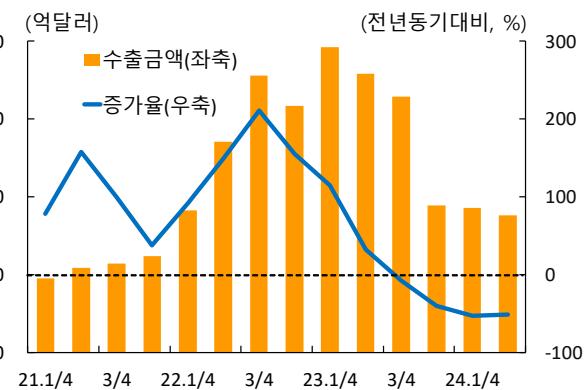
이차전지와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감소세 지속

[그림 8.1] 이차전지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8.2] 양극재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이차전지와 양극재 모두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중국에서 부진하였다. 2/4분기 중 미국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7.7% 줄어들면서 전분기(-44.4%)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중국 수출은 감소로 전환(1/4분기 +59.9% → 2/4분기 -21.0%)되었다. 유럽지역 수출도 전분기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48.6% → -25.8%)가 지속되고 있다. 양극재의 경우에도 미국(-77.7% → -39.3%), 중국(-45.8% → -57.2%), 유럽(-49.5% → -52.8%)에 대한 수출이 전분기에 이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차전지의 미국, 중국, 유럽 수출이 모두 감소
[표 8.1] 우리나라의 국가별 이차전지 수출¹⁾

	2024.1/4분기		2/4분기	
미국	5.9	(-44.4)	5.8	(-47.7)
중국	0.9	(-59.9)	0.5	(-21.0)
유럽	2.6	(-48.6)	2.6	(-25.8)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양극재의 미국, 중국, 유럽 수출도 모두 감소세 지속
[표 8.2] 우리나라의 국가별 양극재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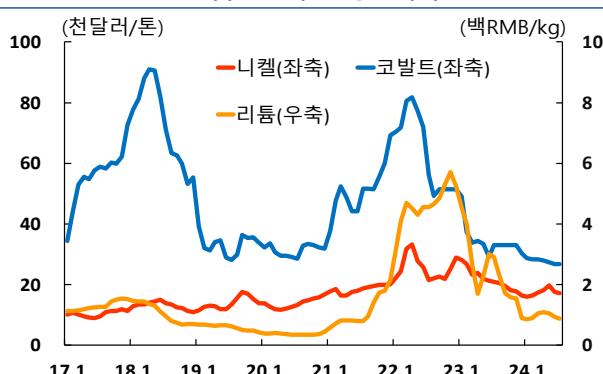
	24.1/4분기		2/4분기	
미국	1.7	(-77.7)	2.8	(-39.3)
중국	7.2	(-45.8)	5.7	(-57.2)
유럽	8.4	(-49.5)	7.9	(-52.8)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러한 부진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⁹⁴⁾을 보이는 가운데 리튬 등 주요 원자료 가격의 하락이 양극재 및 이차전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출액 변화를 가격과 물량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이차전지와 양극재 모두 가격 요인에 따른 수출 감소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주요 광물 가격은 부진한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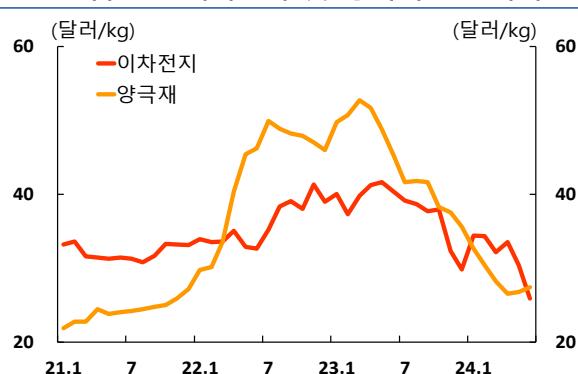
[그림 8.3] 주요 광물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

이차전지와 양극재 판매가격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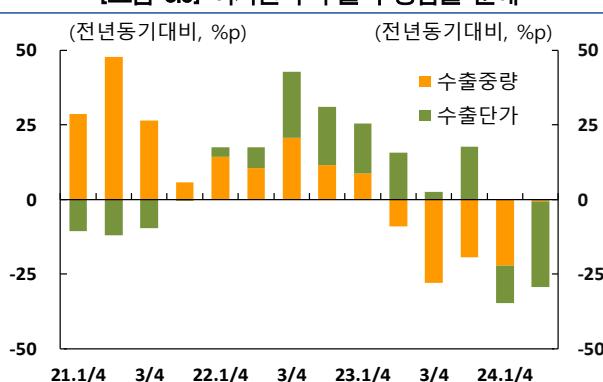
[그림 8.4] 이차전지 및 양극재 판매가격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차전지 수출 감소는 주로 가격 요인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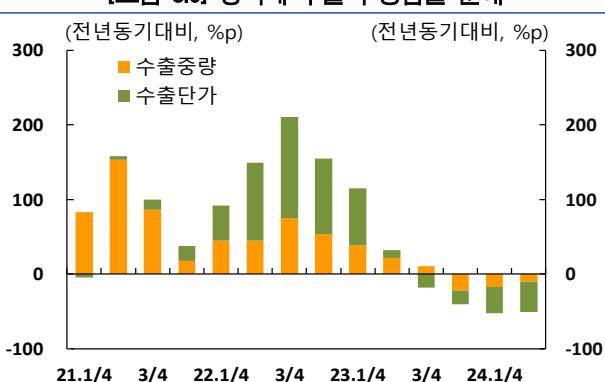
[그림 8.5] 이차전지 수출액 증감률 분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양극재도 가격 요인에 따른 수출 감소폭이 확대

[그림 8.6] 양극재 수출액 증감률 분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4) 2024년 1~5월 중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1.5%에 그치며 2021년 +109.0%, 2022년 +56.9%, 2023년 +33.5%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SNE리서치)

95) 2024년 2/4분기 중 이차전지의 수출 단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8.9%로 전분기(-13.9%)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양극재의 수출 단가 상승률도 -44.7%로 2023년 4/4분기 -20.7%, 2024년 1/4분기 -40.6%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4. 국내 이차전지 및 양극재 생산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도 부진한 모습이다. 2/4분기 중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9.8% 줄어들며 전분기(-29.9%) 수준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삼성SDI(-4.2% → -23.8%)의 매출액은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도 매출액이 57.5% 줄어들며 전분기(-51.7%)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삼원계 배터리⁹⁶) 기준)에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⁹⁷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

[표 8.3] 국내 주요 기업 실적¹⁾

(천억원,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24.1/4분기	61.3	(-29.9)	51.3	(-4.2)	9.7
	24.2/4분기	61.6	(-29.8)	44.5	(-23.8)	8.1
영업이익	24.1/4분기	1.6	(-75.2)	2.7	(-28.8)	0.1
	24.2/4분기	2.0	(-57.6)	2.8	(-37.8)	0.04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FnGuide, 각사 발표

향후 전망

5. 3/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⁹⁸ 진입으로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높은 전기차 가격, 전기차 보조금·세제 혜택 축소⁹⁹,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ESS시장에서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¹⁰⁰ 채택 확대 등도 수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차전지 및 양극재의 판매가격 하락세는 3/4분기 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6.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련 무역 제재¹⁰¹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이차전지 제조업체

96) 리튬코발트산화물을 기본으로 니켈과 다른 원소 3가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은 모두 삼원계 양극재를 사용한다.

97)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0년 83%, 2021년 80%, 2022년 65%, 2023년 6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8) 캐즘(Chasm)은 초기 얼리 어댑터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 후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99)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세수 확보를 위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1조 7,340억원, 환경부)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축소되었다.

100) 포드, 볼보, 폭스바겐은 올해 LFP 배터리 적용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3사는 삼원계 배터리가 주력 제품인 반면, 중국 배터리사는 LFP 제품을 주력으로 성장해왔다. LFP 배터리란 양극재로 리튬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이며, 삼원계 배터리보다 용량은 작지만 안정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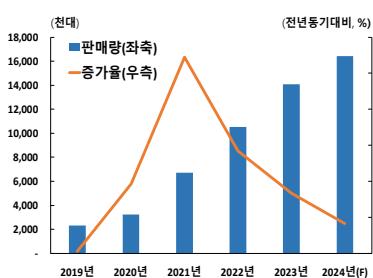
101) 미국은 올해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에서 100%로, 7.5%에서 25%로 높였다.

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이차전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대선 결과¹⁰²⁾에 따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관련 지원책이 축소되고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환경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관련 계획에서 엇갈린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7.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차전지 및 양극재 산업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정책¹⁰³⁾,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노력¹⁰⁴⁾ 등이 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축소¹⁰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기조¹⁰⁶⁾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즘(Chasm)에 진입한 전기차 시장

[그림 8.7]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증가율



자료: SN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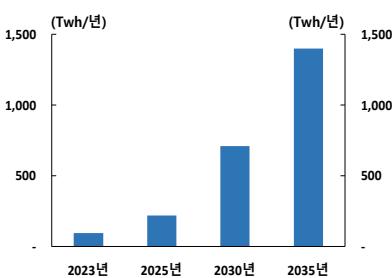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엇갈린 투자 결정

[표 8.4]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관련 계획

기업명	세부내용
테슬라	- 전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 감축 결정(24.4월)
GM	- 미시간주 공장 EV 생산 전환을 위해 9억 달러 투자(24.7월)
포드	- 일부 EV 신모델 생산 일정 연기(24.4월)
VW	-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50억 달러 투자(24.6월)

자료: 각사 발표

[그림 8.8] 글로벌 전기차 전력 수요 전망¹⁾



주: 1) 에너지, 기후, 산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전망(STEPS 시나리오)

자료: EIA

또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CATL 등 중국 업체가 위구르 강제 노동에 연루되어 있다며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에 따른 관련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였다.(24.6월)

102)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전기차 의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언하였다.(24.7월)

103)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50년까지 미국의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이 11% 증가에 그치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8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104) 이는 ESS 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2021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05) 미국 환경보호국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06) CES 2024에서 부각된 자동차 산업의 미래 트렌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 SDV는 연결성, 자율기능, 맞춤화 등을 중심으로 이동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의 전동화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노우호(2024), “이차전지/태양광 속도전: 공급망 재편 전환기”, 메리츠증권

도원빈(2024),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 한국무역협회

송선재(2024),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하나증권

이안나(2024), “파고들다 LFP 배터리”, 유안타증권

이용욱(2024), “양극재 5월 수출액 코멘트”, 한화투자증권

이현욱(2024), “Monthly 자동차/2차전지”, IBK투자증권

정원석(2024), “이차전지 Monthly”, 하이투자증권

정원석(2024), “이차전지/Underweight 불편한 진실”, 하이투자증권

EIA(2024), Global EV Outlook 2024, “Moving towards increased affordability”